

한국-Korea 신조어

: 2026 2 4 2:51

타이틀	설명
한남, 한남충	‘한국 남자’에 접사 ‘-충’을 결합하여 만든 말로, 2015년 8월에 처음으로 쓰였다.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갈리아에서 여성혐오에 대한 ‘미러링’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[95], 메갈리아로부터 많은 회원이 유입된 워마드에서는 좁게는 ‘시스젠더 헤테로섹슈얼인 한국 남성’을, 넓게는 ‘모든 한국 남성’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한다.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이를 특정한 성별에 대한 혐오·비난 표현으로 규정하였다. [98]
핵-	뒷말에 붙어 성질이 아주 강함을 나타내는 접사이다.
할매니얼	할머니와 밀레니얼을 합친 신조어로, 밀레니얼 세대들이 할머니 문화를 좋아하고 따라 하는 소비 트렌드를 지칭한다. 인절미, 쑥, 흑임자를 즐기는 할머니 입맛에 열광하고, 롱 스커트, 꽃무늬, 카디건처럼 ‘할매룩’이 패션 아이템으로 사랑받는다.
할많하않	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
할말하않	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의 줄임말
함정	함정 : 「명사」「낚시」와 유사하게 사용된다. 이 단어가 유행하기 전에는 '낚시'를 자주 썼었지만 외국 흑인이 유희왕 카드를 들고 '넌 내 함정카드를 발동시켰어'라고 하는 짤방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낚시보다 더 자주 쓰이게 되었다. 덕분에 '함정카드'라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. 후에 함은정이라는 배우가 있어 함정을 함은정이라고 말하기도 함.
헐, 혁	헐, 혁 : 「의성어」놀랄 때 쓰이는 말이다.